

건설 설계 · 감리 대표기업 (주)삼안

‘우리 국토에 삼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삼안은 국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이다. 지난 1967년 회사가 설립된 이래 43년간 국내 건설 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 온 전문건설기업이다.

이는 삼안이 수행해 온 사업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국내 두 번째 저수용량을 갖춘 충북의 충주댐, 국내 최초·세계 최대인 경기 안산 일대 시화호 조력발전소, 서울도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은 청계천 복원공사 등이 삼안의 대표작이다. 삼안은 전통적 강세 분야인 수력(댐)·수자원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철도, 도시, 상하수도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도로, 구조, 항만, 환경, 항만 등의 분야에서도 업계 정상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명실공히 업계 최고의 종합 엔지니어링사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주요 실적으로는 충주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댐의 설계 및 감리, 5대강 유역 종합치수대책,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지하철 설계 및 감리,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등 설계, 남약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등 도시 설계를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4대강살리기 사업 설계 및 감리, 경인아라뱃길 시설공사 설계, 새만금개발사업 설계 등 대규모 국가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공기술분야와 깊은 인연

삼안은 1970, 80년대에 농공기술사업부가 회사의

주력부서였으며 농공부가 현 도시계획부의 전신이다.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이예민 부사장을 비롯한 많은 한국농어촌공사 출신 인사들이 삼안에 재직하였고, 현재도 회사 내 각 부서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새만금산업단지, 4대강특농업사업 등 농어촌공사의 주요 사업을 수행중에 있다.

토목설계분야 수주 1위

삼안은 2001년부터 7년 연속 토목설계분야 수주 실적 1위를 기록했으며 매년 2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살리기를 위한 SOC사업의 확대 및 조기발주 정책으로 3,559억원을 수주하여 목표치를 상회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특히 삼안은 국내 엔지니어링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데 만족하지 않고 급변하는 사업 환경 변화와 글로벌화에 발맞춰 해외사업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4년 중국 상해 법인 설립, 2008년 러시아 모스크바 법인 설립, 알제리 지사 설립 등을 통해 활발한 현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11건의 지하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알제리에서도 Sidi Abdellah 신도시 계획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네팔, 파키스탄 등에도 진출하여 그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활발한 해외활동의 결과로서 지난 7월, 국내 토목 종합 설계업체 중 최초로 건설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ENR의 “THE TOP 150 GLOBAL DESIGN FIRMS 150”부문 122위에 등재되었다 (2010.7.26 발행 판).

삼안의 이 같은 힘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전문기술사에서 나온다.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240명의

전문기술사를 비롯, 1300여명의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 및 연구 활동 등 기술인력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 미국·프랑스·일본·네덜란드 등 엔지니어링 기술 선진국과 기술제휴를 통해 삼안만의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세계 최고 엔지니어링기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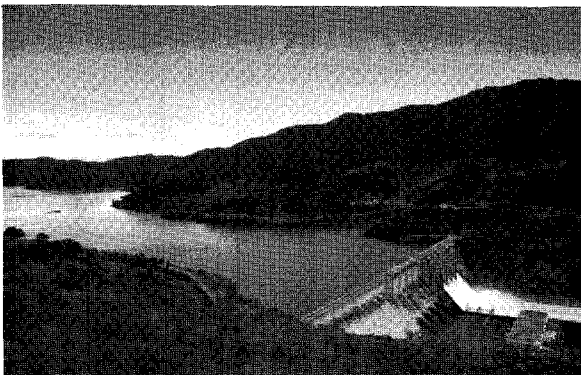
기술제일주의·미래지향적·환경친화적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한 품질경영의 실천도 삼안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오랫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연구개발, 품질관리에 매진한 결과 지난 1998년에 ISO 9001, 2004년에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2005년 5월에는 엔지니어링업계 최초로 웹 환경 종합 ERP시스템인 '삼안통합경영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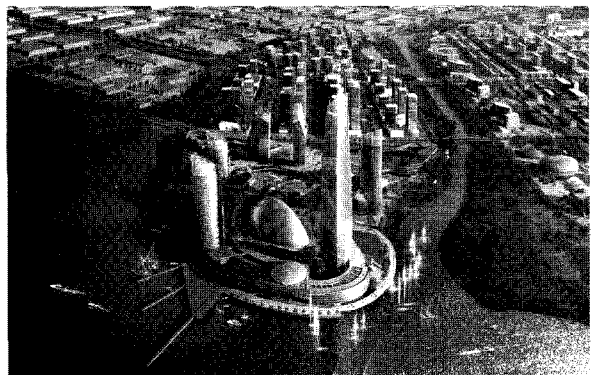
(SATIS)'을 구축했다. 삼안은 이를 통해 입찰부터 수주, 계약, 공정관리 등 일련의 프로젝트 추진과정을 실시간으로 집계, 분석해 효율적 경영관리는 물론이고 열린경영, 투명경영의 기초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SATIS 내에 체계적인 성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회사가 그 동안 축적해 온 설계도면 등 모든 성과품 및 국토에 관한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일목요연하게 검색과 공유가 가능하도록 구축, 엔지니어링산업을 지식정보 산업으로 변모시켰고 이러한 점이 높이 평가돼 2006년과 2007년 연속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표준 경영대상 정보화경영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삼안은 국내 최고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는다. 지난 40년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힘을 쏟은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0년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성장하는 '도약의 기간'으로 삼을 계획이다.



충주다목적댐



새만금산업단지